



고모리와 란다, 전략적 제휴 강화 란다, 나노그래피 인쇄기술 · 잉크 고모리에 제공

란다코퍼레이션과 고모리코퍼레이션은 지난 11월 1일 양사의 전략적 관계 강화를 발표했다. 고모리는 란다의 나노그래픽 개발에 협력했고, 란다는 나노그래핀쇄기술을 적용한 매엽인쇄기 플랫폼을 제작, 제공했다.

자료제공 | 일진씨엠에스

전략적 관계강화를 통해 고모리는 모든 란다 나노그래피 매엽 인쇄기용 플랫폼의 단독 글로벌 공급자로 선정됐다. 또 란다는 고모리 브랜드의 나노그래피 인쇄기에 들어가는 나노그래피 인쇄기술과 잉크를 고모리에 제공한다는 다면 계약을 맺음으로써 양사의 장기적인 전략적 제휴를 정식화했다.

란다, 1년 동안 평가작업후 고모리 선정

드루파2012 이후 란다 기술진은 란다 나노그래피 인쇄기용 매엽 플랫폼 공급처 선정에 위해 유럽과 아시아 양쪽의 대형 인쇄기 벤더의 제안을 평가해 왔다. 란다는 기술력, 설계의 신뢰성, 자동화, 비용대비효과 등을 고려했으며, 혁신을 바라는 사품, 기술자원, 상업실적, 재무적 안정성도 중요한 평가기준의 하나였다. 1년에 걸친 평가작업 후 란다는 고모리가 최적의 파트너임을 확신했다. 이 평가결과에 따라 란다는 2014년 4/4분기에 납입될 란다 S10 나노그래피 인쇄기의 매엽 플랫폼을 고모리에 발주했다.

고모리 연구개발 멤버는 란다 나노그래피 인쇄기술을 장기간에 걸쳐 평가, 시험해 기술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고모리는 나노그래피가 디지털인쇄업계에 있어서 최저 페이지당 비용으로 오프셋 인쇄의 품질과 속도를 양립시키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고모리는 란다와 정식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양사간의 장기적인 전략적 제휴를 공고히 했다.

란다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사 회장인 베니 란다는 “고모리와 협력을 시작한 때부터 우리들은 고모리라는 회사, 인재, 사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고모리는 란다에 있어 걸출한 파트너로 높은 기술력, 전문지식,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미래에 출자하는 열의와 의욕을 갖추고 있다. 고모리는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난제를 그냥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글로벌 인쇄기 벤더를 전략적 파트너로 맞이한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다”라고 전했다.☺